

[평택을] AI 기반 포지션 리빌딩 및 역전 전략 플레이북

도전자 그룹(4·5위권)의 판세 뒤집기 청사진: 인텔리전스 커맨드 센터

[Data]

객관적 데이터 기반 약점 분해

[Message]

타겟 유권자 맞춤형 메시지 설계

[Action]

90일 캠페인 에스컬레이션 로드맵

1위: 김재연 (732점)

THREAT LEVEL: HIGH

2위: 양향자 (715점)

THREAT LEVEL: MODERATE

3위: 유의등 (695점)

THREAT LEVEL: MODERATE

4위: 황교안
(651점, 격차 -81점)

STRENGTH OPTION: VIABLE

5위: 김용
(572점, 격차 -160점)

STRENGTH OPTION: STRATEGIC RESERVE

1. 차별화 극대화 (Differentiation)

전 항목의 균등한 개선이 아닌,
강점(전문성·소통능력)의 비대칭적
자원 집중.



2. 중도층 흡수 (Centrist Capture)

추상적 이념을 배제하고 수치화된
'검증 가능한 약속'으로 스윙 보터 설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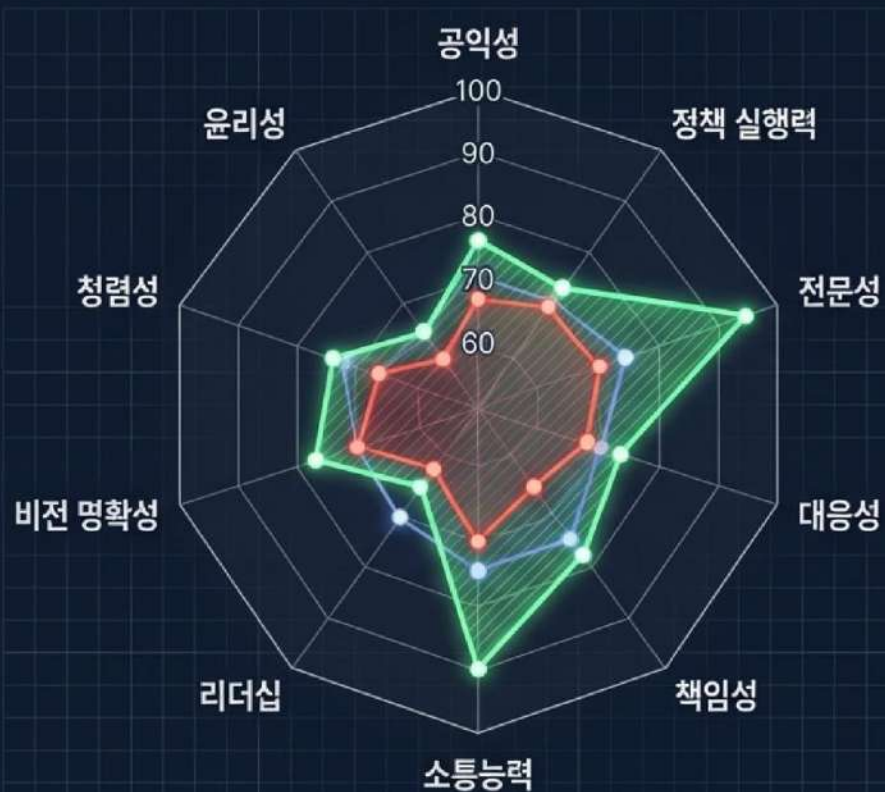
3. 메시지 재정의 (Message Reframing)

기존 방어적 메시지 폐기, 선제적 투명성
공개 및 타겟팅 단문 메시지 전환.



**핵심 인사이트: 균등한 점수 향상은 패배로 이어진다.
강점의 비대칭적 집중 투하가 역전의 유일한 해법이다.**

High tech Surplus/Deficit Zone Map



Comparison Matrix

공통 강점 영역 (Neon Green Zone)

전문성(70점 공유) 및 소통능력(황 70, 김 68)
타 후보 대비 확실한 비교 우위. (공략 무기)

공통 취약 영역 (Alert Red Zone)

윤리성(황 50, 김 44) 및 청렴성(황 64, 김 36)
1위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치명적 결함. (방어 최우선 과제)

핵심 인사이트: 두 도전자 모두 '현장 소통과 전문성'이라는 훌륭한 창을 가졌으나, '윤리성 및 청렴성 리스크'라는 깨진 방패를 들고 있다. 방어막 구축 없이는 창을 휘두를 수 없다.

Gap Decomposition Tree

-160

1위 대비 최대 부족 점수

이미지 요인 (윤리성/청렴성 격차)

원인: 과거 논란 해명 미흡 +
재정/이해관계 투명성 공개 부족

재산 내역 자발적 업데이트,
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선제 공개

정책 요인 (비전 명확성/공익성 격차)

원인: 장기 비전 메시지 모호 +
주민 체감 성과 스토리텔링 미흡

'00년까지 00% 달성' 수치형
비전 선언, 100일 리포트 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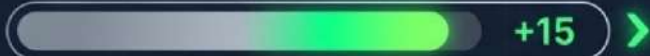
소통 요인 (리더십 격차)

원인: 위기 상황 선도 경험 부족 미흡 +
비전 선언 노출 빈도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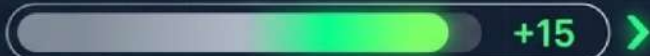
리더십 사례 언론 배포,
주간 현장 라이브 정례화

Turnaround Simulator

윤리성 리스크 통제 (+15점)



청렴성 선제 방어 (+15점)



공익성/리더십 부각 (+15점)



시뮬레이션 가동: 하위 3개 항목 집중 방어

지지율 전환 추정 모델 모델 (Voting Percentage Projection Model)



모든 약점을 고칠 시간은 없다.
하위 3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만으로 전체 판세의 4%p를 가져올 수 있다.

Head-to-Head Tactic Board



프레임 전환(Frame Shift)의 법칙: 상대의 강점 구역에서 싸우지 마라. 상대가 네거티브를 걸어올 때, 우리는 수치화된 지역 비전과 대안으로 전장을 옮긴다.

스윙 보터(중도층) 흡수 5단계 퍼널

1. 정책 구체화

추상적 공약 폐기, 반드시 '수치+기한' 명시.
(검증 가능한 약속)

2. 이미지 중립화

극단적 당파성 언급 자제, 초당적 현안 해결 태도.
(지역 주민을 위한 후보)

3. 직접 접촉

전통시장·학교 등 중도층 밀집지 등선 집중.
(현장에서 만납니다)

4. SNS 감성 소통

정책 홍보를 줄이고 일상적 인간미 노출.
(나도 주민입니다)

5. 제3자 추천

정치적 중립 인사(전문가·시민단체)의 지지 선언 유도.
(믿을 수 있는 전문가)

**핵심 인사이트: 중도층은 이념이 아닌
'유능함의 증거'와 '투명한 절차'에 표를 던진다.**

Core Message Architecture (Temple)

적극 사용 키워드 뱅크
(강점 구역)

[숫자로 말하는 정치]

[전문가 후보]

[현장 경험 20년]

[직접 소통]

[24시간 민원 처리]

정책 실행형 슬로건:
검증된 실행력,
[후보]가 만드는 변화

신뢰 청렴형 슬로건:
약속을 지키는 후보,
[후보]

비전 도약형 슬로건:
[후보]와 함께,
우리 지역의 미래

지하(지퇴발):
신중 접근 구역

청렴성·윤리성·리더십 관련 즉흥 발언 원천 금지
(반드시 사전 준비된 대본 사용)

핵심 인사이트: 강력한 메시지 구조화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설득의 열쇠입니다.



DO - 무조건 지켜야 할 원칙

공약과 정책은 항상 '수치+기한'을 붙여서 발언하라.
(예: 2028년까지 30% 달성)

→ 상대 비판 시 반드시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.
(‘A가 문제입니다’ → ‘A는 B로 해결합니다’)

현장 민원을 들을 때는
'경청 → 공감 → 해결책'의
순서를 엄수하라.



DON'T -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



즉흥 발언 금지:

약점 항목(과거 논란, 윤리성)에 대해 방어적 태도로 즉석 해명하지 마라.



감정 통제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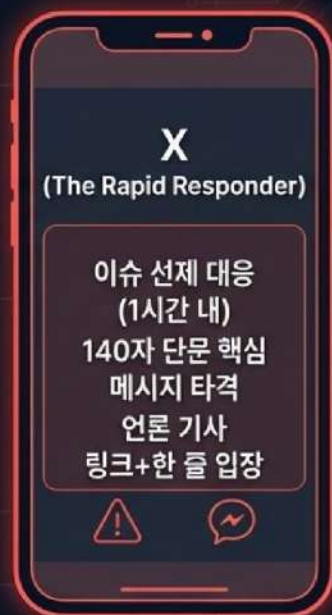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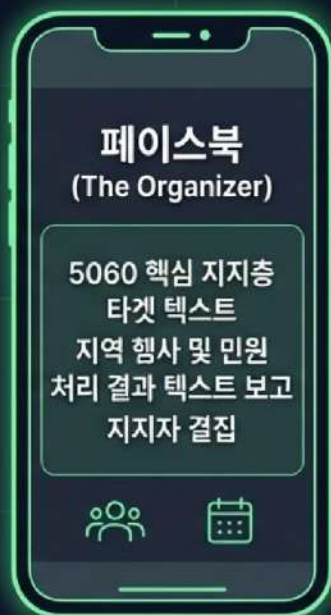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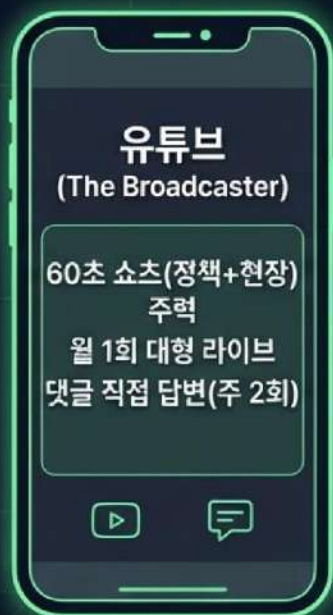
고성, 반말, 인신공격, 미확인 정보 기반 의혹 제기 절대 금지.



근거 없는 자만:

데이터 없는 비교 발언 ('저만이 유일하게...') 금지.

디지털 프론트라인: 플랫폼별 원소스 멀티유즈(OSMU) 전략



작전 지침: 플랫폼의 문법에 맞춰 메시지의 껍질을 바꿔라. 알맹이는 하나다.

DEFENSE MATRIX: 위협 방어 및 선제 대응 전략



[위협] 재정 투명성·이해충돌 의혹
(상대의 재산/후원금 공세 예상)



[방어] 자발적 재산 내역 업데이트 및
'이해충돌 방지 서약서' 선제 공개.



[위협] 과거 언행·논란 재소환
(SNS 아카이브 털기 예상)



[방어] 캠프 내 과거 논란 리스트업 완료.
해명문 사전 준비 및 '행동강령 재서약'
퍼포먼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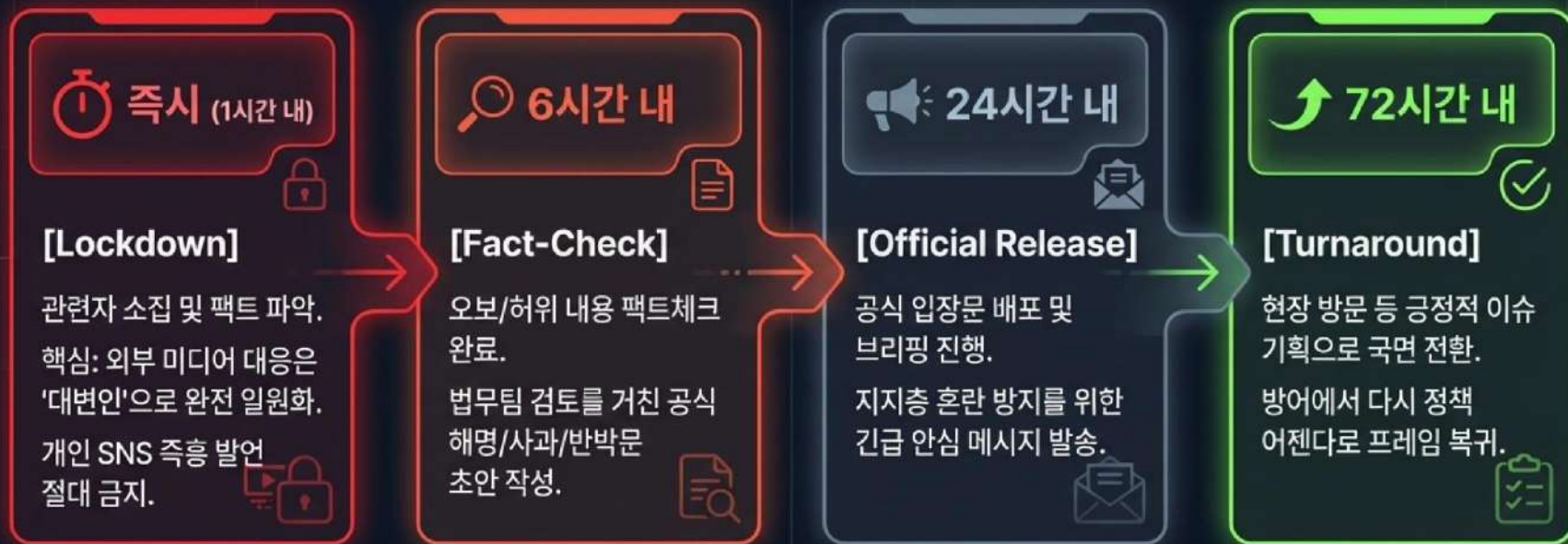
[위협] 공약 불이행 프레임
('말만 많고 실천 없다' 공세)



[방어] 과거 공약 이행 현황표
100% 투명 공개. 미이행 건 합리적
사유 및 변경 대안 선제 설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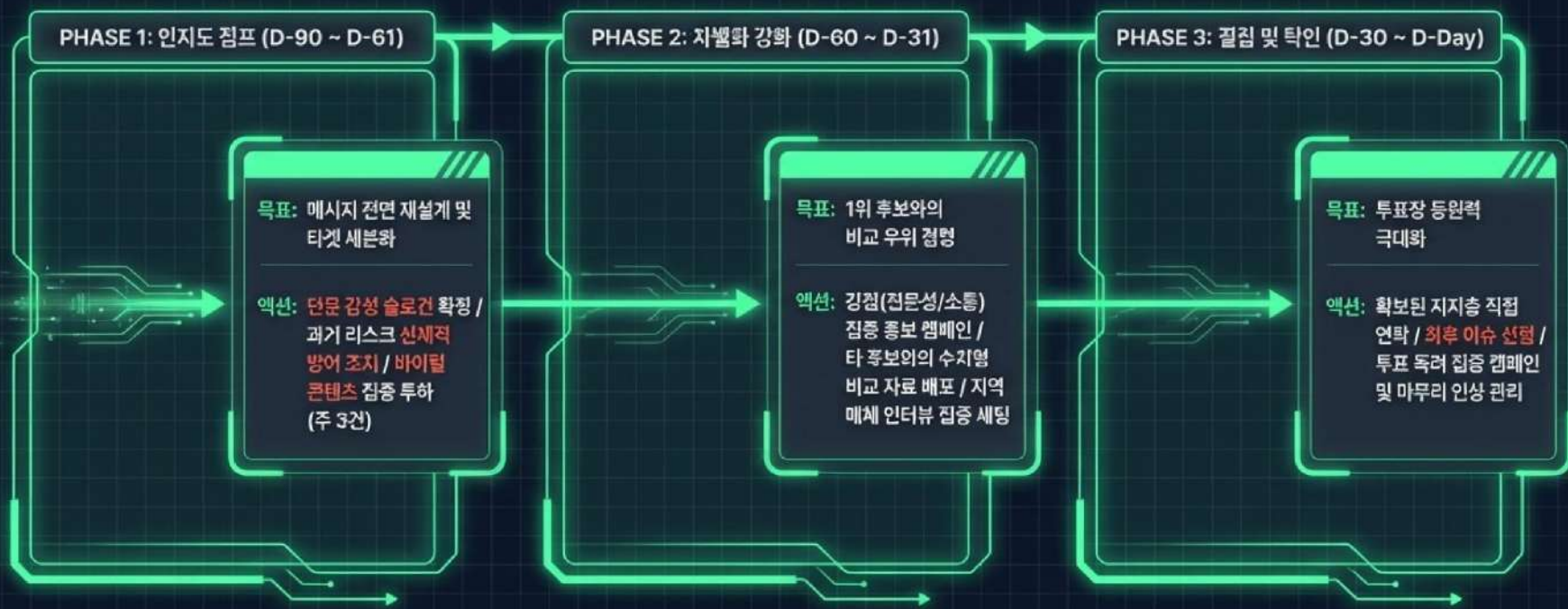
행동 원칙: 공격받고 해명하면 변명이 되고, 공격 전 공개하면 투명성이 된다.

GOLDEN TIME PROTOCOL: ESCALATION TIMELINE & RISK RESPONSE



행동 원칙: 위기는 골든타임 내 초기 진압이 핵심이며, 신속한 전환으로 주도권을 회복하라.

90-DAY CAMPAIGN ENGINE: GANTT CHART



캠프 조직별 분업 체계: DIVISION OF LABOR

선대위원장 (Command)

전략 방향 최종 확정.
매주 1회 전략 조정 회의 정례화.

SNS/디지털팀 (Digital Ops)

일일 타겟형 콘텐츠 발행.
60초 쇼츠 바이럴 및 투표 독려 라이브 기획.

현장/조직팀 (Ground Force)

스윙 보터 밀집 지역 등선 설계.
지지자 DB 구축 및 투표 독려 콜.

홍보/언론팀 (Air Force)

주 3회 보도자료. 위기 시 24h 내 반박 보도.
마무리 긍정 기사 스케줄링.

정책/공약팀 (Data Core)

모든 공약의 '수치+기한'화.
상대 네거티브 방어를 위한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 구축.

법무/리스크팀 (Shield)

선제적 리스크 스크리닝.
상대 흑색선전 법적 대응 및 선거법 최종 검토.

전략의 실패는 계획의 부재가 아닌, '실행 책임자의 부재'에서 발생한다. 주 1회 전략 점검을 시스템화하라.